<슈뢰딩거의 냥이들> 제작계획서

1. 작품개요

작 품 명	슈뢰딩거의 냥이들	장 르 구 분	드라마	
감 독	서윤수	프 로 듀 서	조민상	
조 감 독	장민경, 방미현	촬 영	김선형	
동 시 녹 음	이지성	음 악	미정	
규 격	HD	출 주 연	강진아, 이승현	
색 채	칼라	연 조 연	미정	
상 영 시 간	25분	자 단역	4(명)	
촬영개시(예정)	20년 6월 27일 ~ 30일	촬영회차(예정)	4회차	
후반작업(예정)	2020년 7월 ~ 2020년 8월	제작완료일(예정)	2020년 8월	
제작기간(예정)	제작기간(예정) 3개월		15	

2. 기획의도 및 시놉시스

■ 기획의도

국가에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도 그 정책의 일환이다. 결혼을 앞둔 남녀 커플에게 전세집을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해주는 대신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그러나 주거가 필요한 인구는 많고 제공되는 주택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전세를 제공받느냐,일반 월세집에서 사느냐에 대한 차이는 금전적인 부분 뿐만이 아닌 정서적인 안정감 또한 다르다.

그리고 영화는 이 상황에 직면한 예비신혼부부를 다룬다. 국가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전셋집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청년들. 행복주택 당첨 유무를 기다리는 그들의 상황을 슈뢰딩거의 고양이 이론에 빗대어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현대 사회의 사각지대를 다루고자 한다.

■ 시놉시스

서울도시주택공사(SH)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 당첨 결과를 기다리는 현승과 정선은 동거 3년차 커플이다. 서울의 전셋집을 얻는 것이 목표인 두 사람은 서울권 행복주택에 당첨 되면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신혼 생활을 꾸릴 계획이다.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기쁨도 잠시, 1차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에서 떨어진 두 사람은 크게 낙심한다. 정선은 수입이 불안정한 사진작가 현승과의 결혼 생활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끝내 정선은 자신과 비슷한 커리어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며 현승에게 이별을 선언한다. 홀로 남겨진 현승은 며칠 뒤 SH로부터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 추가 합격 소식을 받게된다. 행복주택 주택방문을 간 현승은 따뜻하고 넓은 전셋집을 구경한다. 당첨 소식을 정선에게 전할까 고민하던 찰나 퇴근한 모습의 정선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 텅 비어 있던 행복주택은 마치 두 사람의 신혼집 풍경처럼 꾸며져 있다. 두 사람이 바랐던 이상경을 바라보던 현승은 정선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 하지만 이내 재결합을 포기하고 만다. 현승은 정선과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이사를 결심하고 월세집을 비운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살았던 월세집을 나가려는 찰나 끝내 잘 가라는 인사도 건네지 못 한 정선을 떠올리며 추억을 가슴에 묻는다.

3. 프로덕션 일정

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비고
시나리오						시나리오 수정
콘티						콘티 작업
스탭구성						메인, 보조스텝 구성
헌팅						한탄강, 월세집, 수목원 등
배우 캐스팅						주연 확정, 사전 리딩 진행
촬영						4회 차
편집						컷 편집 및 색보정
음악, 믹싱						스코어링 포함

4. 촬영계획표

	씬	시간	장소	내용	
1회자 -	3	낮	수목원	정선은 가족들과 나들이를 즐기며 현승과의 미래를 꿈꾼다.	
	4	낮	정선 사무실	정선은 행복주택에 당첨되지 못해 낙심한다.	
	5	亩	망원동 길거리	정선은 집으로 귀가한다.	
	6	亩	월세집 앞	정선은 창을 통해 현승의 모습을 바라본다.	
	7	낮	한탄강A	현승을 풍경 타임랩스를 촬영한다.	
2회차	8	낮	한탄강B	현승과 정선은 크게 싸운다.	
	12	낮	팔당호	현승은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다.	
	13	낮	행복주택	현승은 행복주택에서 정선과의 신혼을 상상한다.	
3회차 -	1	計	월세집	현승과 정선은 푸드파이트를 한다.	
	2	訲	월세집	현승과 정선은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기뻐한다.	
4회차	9	낮	월세집	정선은 월세집을 떠나고 현승은 홀로 남게된다.	
	10	낮	자가용	정선은 현승과의 이별에 슬퍼한다.	
	14	낮	월세집	현승은 월세집을 떠나고 정선과의 기억을 가슴에 묻는다.	

5. 감독이력

■ 연출감독 이력

성명 : 서윤수

학력 :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영화과 연출전공 졸업

• 단편영화 연출감독 이력

2012 단편영화 <수상좌대> 연출

2012 단편영화 <메이데이> 연출

- 부산디지털콘텐츠유니버시아드 시나리오부문 대상
- 청춘영화제 초청작
- 메이드인부산 독립영화제 경쟁부문

2014 단편영화 <너를 굉장히 아끼는 유흔> 연출

- 제9회 상록수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 경쟁부문
- 홍콩 The 11th global chinese universities student film and tv festival 초청
- 상하이국제영화제 대학생부문 초청
- 청춘영화제 초청작
- 김해전국영상제 장려상

2015 단편영화 <도미노 레이디> 연출

- 진주같은영화제 초청작
- 제1회 클라우드펀딩영화제 초청작
- 국제청소년평화휴머니즘영상공모제 장려상
- 이탈리아 코르티소니치 국제단편영화제 경쟁부문
-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장려상

• 단편영화 촬영감독 이력

2009 동서대학교 단편영화 <파라노이아> 촬영

2009 동서대학교 단편영화 <폭풍간지 운수돌> 촬영

2014 동서대학교 단편영화 <흔적> 촬영

2015 개인 단편영화 <삼대> 촬영

2017 단국대학교 대학원 단편영화 <숨바꼭질> 촬영 단국대학교 대학원 단편영화 <한나의 아이> 촬영

2018 개인 단편영화 <시나리오> 촬영

개인 단편영화 <미녀자리> 촬영

개인 단편영화 <중구난방 시 같은 영화> 촬영

2020 개인 단편영화 <도화지> 촬영

• 장/단편영화 스텝 이력

2012 OCN드라마 <뱀파이어검사 시즌2> 연출부 4th

2014 임권택감독 <화장> 연출부 3rd

2015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영화 <아기와 나> 연출부 2nd

2019 개인 단편영화 <M-SANG> 조감독

2019 개인 단편영화 <밤의 침묵> 조감독

2020 개인 단편영화 <정릉의 새벽> PD

6. 시나리오

S#2. 수목원_낮

양지 바른 잔디에 자리를 잡은 정선과 정희. 간식을 곁들이며 낮술을 한다. 저 멀리 현승과 하준이는 포켓몬GO 삼매경이다.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제자리를 빙 빙 돌고있다.

정희

그런데 서류제출대상자면 아직 이른거 아냐? 보통 삼배수로 뽑잖아.

정선

에이 경쟁률 3대 1인데. 난 100프로 가능성 있다 생각해. 우리가 얼마나 가난뱅인데.

정희

더 힘든 사람들도 많어~. 이미 아기가 있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부모님 부양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1순위 아냐?

정선

아이가 있으면 서울에 안 살지. 언니도 그렇잖아.

정희

그건 시댁에서 집을 해주니까... 너희 형부 직장도 근처고. 근데, 너희도 그냥 경기도로 알아보면 안 돼? 이웃집에 같이 살면 재밌겠다. 하준이가 제일 좋아하겠네?

정선은 멀리 현승을 바라본다.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는 현승과 하준.

정선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현승이는 서울이 좋대.

정희

...현승씨 요즘 많이 바뻐?

정선

계속 자기 작품 찍으러 다녀. 나도 주말엔 따라 다니고. 다음달에 단체전 있어서.

정희

부지런하다 계속 전시도 하시네? 돈 많이 준대? 무슨 돈을 줘 자기가 써야지.

정희 요즘도 자주 싸워?

정선 궁금한거 많네 진짜.

정희 걱정 시키지를 말던가.

정선
...그래도 요즘은 안 싸워….
그리고 전세집 생기면 싸울 일도 없어.
그럼 결혼식도 올리고, 돈도 모으고.....?? 왜?

정희는 정선을 뚫어져라 쳐다보고있다.

정희 박정선이가 결혼 고민을 하다니.

정선 그러게……. 웃기다. 그치?

정희&정선

멀리서 포켓몬GO를 하던 현승과 하준이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현승&하준 예에에에!!! 칠색조!!!

S#9. 월세집_낮

정선이 집을 빼는 날. 집 안의 살림이 거의 다 정리되고 없다. 현승은 정선이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현승

냉동실에 꽃게도 챙겨가.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잖아.

정선

어떻게 들고 가 다 녹을텐데. 그냥 너 먹어.

현승

...이불은 안 챙겨가?

정선

너 덮을거 없잖아. 그냥 계속 써.

현승

들고 가. 너랑 같이 썼던 것들, 싹 다 갖다 버릴거야.

현승의 가시 돋힌 말에 조금 욱 한 정선.

정선

아~ 잘 됐다. 그럼 저 식기들이랑 사다리랑 조명이랑 해서 대신 좀 버려줄래? 이불이랑 같이?

현승

니가 들고 온건데 내가 왜 버려야 돼?

정선

현승아, 내가 들고 왔어도 우리가 같이 썼잖아. 그냥 집 앞에 놔둬주면 안 될까?

현승

대형 폐기물은 주민센터 신고 해야해. 수수료도 내야 하고. 그것도 몰랐어?

정선

그럼 내가 다시 와서 처리 할게!

현승

니가 여길 왜 다시 와?

정선은 한숨을 깊게 내쉬고 지갑에서 5만원권을 꺼내 현승 앞에 던져버린다.

정선 여기 수수료랑 심부름 값. 됐지?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짐을 챙겨 나가는 정선. 쾅 소리나게 현관문을 닫는다. 홀로 남은 현승. 현관문을 열어 정선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다. 대<u>문 앞에는 자가용을 끌고 마중</u> 나온 정희가 있다. 정선이 트렁크에 짐을 실으려는 찰나 뒷자석에서 하준이가 내린다.

> <u>하준</u> <u>삼촌!</u>

<u>정희</u> <u>하준아!</u>

<u>방실 웃으며 현승에게 우다다 달려오는 하준이. 하준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찰나 문을</u> 쾅 닫아버린다.

> <u>하준</u> 삼촌~.

_ 현관문을 두드리는 하준. 현승은 문을 열지 않는다.

<u>하준</u> 삼촌 포켓몬 많이 잡았어?

<u>정희가 재빨리 올라와 하준이를 데려가 버린다.</u> 삼촌을 찾는 하준이의 목소리가 멀어진다. 현관문을 애처롭게 부여잡고 있는 현승. 이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